

# 문화

Culture

광주일보

제17630호 2006년 12월 18일 월요일

故 汕巖 邊時淵 선생님 영전에

장희구

선생님께서는 한학(漢學)의 큰 등불이셨습니다. 선생님! 그 많은 철학적 사고와 문학적 바탕을 어디에 두고 떠나셨습니까? 통찰한 판단력과 인화력을 어디에 숨겨두고 이렇게 흘로 떠나셨나이까? 따뜻하고 다정한 인품과 덕망을 어디에 놓고 이렇게 흘쳐 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인성교육과 윤리교육 입장에서 반쪽 교육을 그렇게도 안타깝게 걱정하시었던 선생님의 한(恨)이 지금도 묘연하고, 국민적인 합의와 당국의 명쾌한 발표를 미처 보시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시니 참으로 아통하기 그지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서거정(徐居正) 등이 완성한 시문집인 동문선(東文選) 발간 이래 가장 방대한 한국인 문집으로 '문원(文苑) 48권'을 완성하셨습니다. 평생을 두고 집필하셨던 산암전고(汕巖全稿) 15책 72권과 이후 집필본 산암후고(汕巖後稿) 3책 12권을 완간하였습니다. 최근에서는 생애 처음으로 국한학문으로 정리한 산암별고(汕巖別稿) 2권을 출간하시는 등 왕성한 학제력을 발휘하시었습니다.

이 산암별고 속에는 문사철(文史哲)에 바탕을 두면서 사회적으로 활동했던 선생님의 면모와 각계에 보였던 견의문·축문 등이 실려 있어 일생을 알차게 사셨던 선생님의 면모와 왕성한 사회활동을 살펴볼 수 있기도 합니다.

선생님! 편안하게 영면(永眠)하시옵소서! 선생님께서는 생전에 못다 이룬 한자한문교육에 바탕을 둔 어문교과와 인성윤리교육은 남아 있는 저희들이 기필코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동양문화관에서 결코 낙하되지 않는 한국의 후진을 양성하는 주춧돌을 힘써 마련하겠나이다.

선생님! 이제 모든 시름 다 잊으시고 편안하게 영면(永眠)하시옵소서!

(사단법인 한국한문교육연구원 이사장)

2006 지역 문화·예술계 결산

② 공연

## 연례행사 위주...大作 '가뭄'

2006년 광주 공연계는 처음 행사를 치른 광주국제공연예술축제를 제외하고는 연례행사만 개최되었을 뿐 눈에 띄는 공연이나 이슈가 적어 아쉬움을 줬다.

지난 8월 17일부터 43일간 진행된 광주국제공연예술축제는 광주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고급 공연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예산 확보 등에서 난항을 겪으며 '절반의 성공'으로 끝났다.

공연예술축제에서 별소이 밤페단, 키로프 마린스키 밤페단의 수석 무용수들이 보여준 갈라 공연은 광주팬들에게는 귀한 선물이었으며 첼리스트 고영봉, 바이올리ニ스트 다이신 가시모토 연주회, 오페라 '아이디'도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예산 축소로 일부 공연의 경우 기획사 초청행사에 이름만 깨워놓는 등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조직위 구성과 예·결산 집행 등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 예산난 광주국제공연예술축제 '절반의 성공'

### 조수미 데뷔 20년 공연·장한나 콘서트 돋보여

음악 부분에서는 오랫동안 상임 지휘자 없이 운영됐던 광주시립 교향악단이 창단 30주년을 맞아 금노상씨를 새로운 수장으로 영입,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점이 눈에 띤다.

시향은 대작인 '말리고교향곡 2번'에 도전하는 하면 '광주시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집하고 처음으로 '화요아침음악회'를 마련하는 등 대중에게 한발 더 가까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포엠콘서트'를 진행중인 시를 노래하는 달팽이들이 올해 새롭게 시작한 '간이야 콘서트'와 아리사와 동방신기 등이 참여한 '아시아송 페스티벌' 역시 화제가 됐던 공연이다.

연극분야는 광주연극제, 소극장연극제 등 기존의 행사 이외에는 뚜렷한 성과가 없어 아쉬움을 줬다. 하지만 올해 타계한 '한국 연극계의 큰별' 차범석의 '산불'을 광주연극협회 회원들이 합동으로 올려 눈길을 끌었으며 극단 골목길의 '경숙이, 경숙이 아버지', 영화로도 만들어져 화제를 모았던 '이' 등은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수작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성인연극이 주춤했던 데 반해 동신여고가 제 10회 청소년연극제에서 대통령상 등 5관왕을 차지한 것은 지역연극계에 반가운 선물이었다.

무용 분야에서도 경사가 있었다. 박금자발레단의 'Leave trace-흔적을 남기다'는 금상과 안무상, 무대기술상·연기상을 훔쓸어 화제를 모았으며 올해로 창단 30년을 맞은 광주시립무용단(단장 이



지난 9월 세계무대 데뷔 20주년을 맞아 열린 조수미 공연은 대작(大作)에 목말라 하던 이 지역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영애)은 '서동요'를 국립극장 무대에서 올려 갈채를 받았다. 또 '뿌리 깊은 나무' 시리즈를 통해 심수관, 허백련 선생의 삶을 돌아봤던 김미숙무용단은 올해 '한국의 첫 사제-성 견대전'을 무대에 올렸다.

특별한 화제가 없었던 국악 분야에서는 내년 5월 초연을 목표로 의병장 고경명을 주인공으로 한 창극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화제를 모았으며 어린이들로만 구성된 광주 MBC의 국악뮤지컬 '흉부랑 블루링', 깊은 국악 그룹 '황토제'의 활동도 눈길을 끌었다.

올 해에 광주를 다녀온 유명 음악가들의 공연은 관객들에게 큰 기쁨을 줬다. '사계'로 유명한 이 무지치 합주단과 올해로 세계 무대 데뷔 20년을 맞은 소프라노 조수미, 세계 거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첼리스트로 우뚝 선 장한나,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유기 구라모토 등이 무대를 빛냈으며 이경민, 정정원 등 깊은 연주자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 이중섭의 부활을 꿈꾸며

"새벽부터 일어나 전등을 켜 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소. 이제 얼마 안 있어 그대들을 만날 기쁨을 생각하면 대향(大鄉·이중섭 호)은 심글벙글 웃음이 난다오. 그대들을 만나고 싶어서 머리까지 멍해질 지경이요"(중략).

그리고 배상아, 이복승아 2개 '그려' 엄마에게 보내니 동생과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사랑하는 아빠."

지난해 5월 삼성 미술관 리움에서 '천재화가' 이중섭(1916~1956)의 편지화(편지에 그림을 걸친 작품)를 마주한 순간 가슴이 먹먹했던 기억이 있다.

'이중섭 드로잉-그리움'의 편린들'이란 주제로 열린 전시에는 이중섭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버린 은지화(은박지에 날카로운 쇠꼬챙이를 이용해서 그린 그림)를 비롯해 편지화, 엽서, 스케치 등이 선보였다.

그가 은지화를 그리게 된 계기는 순전히 지난 때문이었다. 캔버스와 회구를 살돈이 없었던 그는 솔집이나 다방,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뒤져 담배갑 속에 들어있는 은 속지위에 자유분방하고 강렬한 필치로 그림을 새겼다. 지난날 견디다 못해 아내와 두 아들을 일본 쳐가보낸 후에는 미안함과 그리움을 담은 편지화를 띄우기도 했다. 큰아들이 좋아하는 복숭아를 사줄 수 없었던 무능한(?) 아빠 이중섭은 실물과 똑같은 복숭아를 편지에 그려 혼탁한 저편에 보냈다.

이 '복숭아 그림'은 생전 단짝이었던 시인 구상에게도 건넸다. 6·25 직후 구상이 폐결핵으로 쓰러지자 병문안을 온 그는 도화지에 뭔가 쓰쓰 그린 후 친구에게 내밀었다. 큰 복숭아 속에 아이가 청개구리와 노는 모습을 그린 종이였다. "무슨 병이든 먹으면 낫다는 천도 복숭아 있잖아! 이게 바로 그거야. 얼른 먹고 일어나라구." 친구가 쓰러졌다 소식을 들고 과일 살돈이 없어 며칠을 고민한 끝에 째인 딴이 바로 '복숭아 그림'이었던 것이다. 이 일화는 40년이란 그의 삶은 삶에 드리워진 지난의 삶흔이 어떠했는지를 짐작케 한다.

올해는 이중섭이 가난하고 불행한 삶을 스스로 끊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평생을 가난과 외로움에 시달렸던 고인은, 그러나 죽어서도 잠자리가 편치 못하다. '국민화가'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변한 추모행사는 물론 기념전조차도 열리지 않았다. 경매시장에서도 이중섭 작품은 '기피대상 1호'(?)로 전락했다. 작년 한해 미술계를 온통 뜨겁게 달군 위작파문 탓이다.

지난 13월 위작파문 후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경매시장에 나온 그의 '과수원의 가족과 아이들'(1950년대작)이 6억3천만 원에 낙찰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경매가 이중섭을 위자 시비의 긴 수렁에서 구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 2007년 제18회시험 공인증개사 특강

일류교수진책임강의 민법·운찰한 부동산학·김범 법령및실무·김봉익 부동산공법·이방원 공시법·운찰한 세법·유영교수

개강 1월 2일

합격률최고

전남고시학원

[www.Chonnamgosi.co.kr](http://www.Chonnamgosi.co.kr)

민법·운찰한 부동산학·김범 법령및실무·김봉익 부동산공법·이방원 공시법·운찰한 세법·유영교수

개강 1월 2일

합격률최고

전남고시학원

[www.Chonnamgosi.co.kr](http://www.Chonnamgosi.co.kr)

민법·운찰한 부동산학·김범 법령및실무·김봉익 부동산공법·이방원 공시법·운찰한 세법·유영교수

개강 1월 2일

합격률최고

전남고시학원

[www.Chonnamgosi.co.kr](http://www.Chonnamgosi.co.kr)

민법·운찰한 부동산학·김범 법령및실무·김봉익 부동산공법·이방원 공시법·운찰한 세법·유영교수

개강 1월 2일

합격률최고

전남고시학원

[www.Chonnamgosi.co.kr](http://www.Chonnamgosi.co.kr)

민법·운찰한 부동산학·김범 법령및실무·김봉익 부동산공법·이방원 공시법·운찰한 세법·유영교수

개강 1월 2일

합격률최고

전남고시학원

[www.Chonnamgosi.co.kr](http://www.Chonnamgosi.co.kr)

민법·운찰한 부동산학·김범 법령및실무·김봉익 부동산공법·이방원 공시법·운찰한 세법·유영교수

개강 1월 2일

합격률최고

전남고시학원

[www.Chonnamgosi.co.kr](http://www.Chonnamgosi.co.kr)

민법·운찰한 부동산학·김범 법령및실무·김봉익 부동산공법·이방원 공시법·운찰한 세법·유영교수

개강 1월 2일

합격률최고

전남고시학원

[www.Chonnamgosi.co.kr](http://www.Chonnamgosi.co.kr)

## 공인증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서울"새롭행정고시학원 광주 상륙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증개사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TV방송출연 교수진/ 저자직강★

개강 1月 2日 첫진도 (주간반, 야간반) ·재직자 무료 수강생 약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1위! 361-8111 새롭행정고시학원 서구청앞(농성동)

정밀하고 과학적인 검증

(주)홈컨부동산

리서치 중 개

상부지구 시 청암 한국은행 후분지

062)233-2222 www.homecon.co.kr (부동산자식1동)

一生 최대의 쇼핑! 직접하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信義'와 '科學', 매수 대행 전문

계약에 집착하지 않고, 최적 물건을 찾아서 안내합니다

시장흐름, 收支분석, risk분석 등 정밀분석 후 안내합니다

부属 매수의뢰계약을 체결하고, 막내를 대행합니다

고객과 면접하고, 공감대 형성 후 업무를 개시합니다

信義를 지키는 공동중개를 하겠습니다(약정서 교부)

명예와 양심,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문서로 합니다

천천히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대표 주요 경력

·전남고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94년)

·삼성그룹 기업법무 약10년

- 해외합작계약, M&A계약

- 기업 상장, 사업분석 및 IR업무

- 소송, 각종의 원서 등 업무 지원 등

·(주)걸러리조선 운송법인 대표(시내)

·(주)시승방문사 부서장

·부동산업관련 실무교본 저자